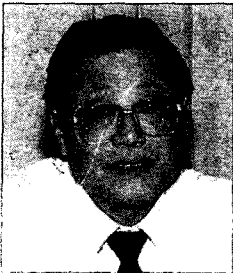


## 제1차 지구혁명 - 로마클럽 보고서

**로마** 클럽이 발족한 것은 1968년의 일이다. 피아트사의 중역으로 널리 알려진 이탈리아의 기업인 아우렐리오 페제이(Aurelio Peccei)가 주동이 되어 「지구의 유한성」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지닌 유럽의 지식인 몇명이 로마에서 첫모임을 가졌다는 뜻에서 로마클럽이라 불리고 있으나 실은 스위스에 등록된 법인체이다. 이 클럽이 발족된 1968년은 여러가지 뜻에서 분기점(the Great Divide)을 이루는 해였다. 2차세계대전후 지속되어 오던 선진공업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 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리막길을 치닫게 되었고 세계를 휩쓴 학생운동, 소외층이나 기성문화에 반기를 든 사람들의 항의소동등이 그칠 날이 없게 된 사회불안을 몰고 온 해였고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환경문제가 도처에서 터져나온 해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서구문명이 몰고 온 근대화의 역사적 전개방향 특히 산업혁명 이후의 근대공업문명에 대한 예리한 비판과 경고가 폭발적으로 제기된 이른바 위기시대가 개막된 해였다.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발족한 로마클럽이 처음 선정한 주제가 「인류의 위기」(the Predicament of Mankind)였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발족 당시부터 53개국에서 가입한 백명의 회원을 지니게 된 오늘날까지 로마클럽의 기본



노 응 희 / 서울대 명예교수  
국토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로마클럽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클럽자체가  
발간한 이 「제1차지구혁명」에는 지금까지  
문제제기로 그쳤던 지난날의 자세를 바꾸어  
새롭게 지구적 해결방법(World Resolutique)  
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적인 사고방식은 다음 3가지를 기틀로 삼고 있다.

(1) 범지구적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자. (2) 단기적 필요에 쫓기는 각국 정부의 입장보다는 장기적 현명이라는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이나 행동을 생각하자. (3) 우리가 당면한 각종 문제들을 개별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복합적인 것으로 파악해서 전체적인 대응책을 생각하자. 이리해서 로마클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 기술, 환경등 각 분야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진 오늘날의 문제를 「월드·프로블레마티크」(the World Problematique)라 명명하였는데 이 용어는 지금까지 이 클럽의 상표처럼 되어있다. 「세계적인 문제복합체(問題複合體)」, 「지구적인 문제군(問題群)」, 「지구진단서(診斷書)」등과 같은 뜻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아래 로마클럽은 지금까지 18개의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첫번째 보고서가 1972년에 발간된 「성장의 한계」(D.L.Meadows et al., The Limits to Growth) 임은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독일의 폭스바겐재단이 지원한 25만달러로 MIT에 위탁한 연구보고서로서 「포오레스타」(J.Forrester) 교수가 고안한 「시스템 다이내믹스」방법을 써서 지구적문제들 가운데에서 계량화할 수 있는 요소만을 골라 그것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어떤 영향을 세계경제에 미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시도한 선구적인 연구였다. 그리고 포오레스타교수는 이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미도우스」교수의 스승이었다. 이 연구결과의 발표자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로마클럽의 명성을 널리 떨쳐주었고 30개국어로 번역되어 1천만부가 팔렸다고 한다. 이 수치는 이 보다 10년 앞서 발간된 미국의 해양생물학자 「카슨」여사의 「침묵의 봄」(Rachel Carson, Silent Spring, 1962)이 50만부 팔렸다 하여 사상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떠든것에 비해보면 대단한 수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침묵의 봄」이 발간된 후 케네디대통령은 크게 감명을 받고 백악관에서 환경보전회의를 열어 국립해안을 지정하는등 자

연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였고 뒤이어 DDT의 제조판매를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날」(Earth Day)을 마련하는 발단이 되었고 UN의 인간환경회의(UNCHE)를 개최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국가환경정책법(NEPA, 1969), 대통령부에 환경의질위원회(CEQ)나 환경청(EPA)등을 '70년에 설치케 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판매부수와는 무관하게 큰 파문을 던진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DDT의 실용화에 기여한 「물러」박사는 노벨상을 수상하고 편안하게 저승에 갔는데 「카슨」여사는 자신이 쓴 고발소설이 몰고 온 결과를 눈으로 보지 못한채 암으로 세상을 등졌다는 점이다.

「성장의 한계」 또한 로마클럽의 존재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경제성장의 한계가 백년을 못 넘는다고 하여 충격적인 요법으로 자원의 유한성과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세계인에게 전달하는데는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비판론도 없지 않아서 로마클럽을 제로성장(zero growth) 추진단체로 오인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주된 비판은 방법론상의 문제점, 물적·양적인 면만이 중시되고 정신적·사회적측면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 과학기술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등이었다. 이리해서 다음해인 '73년 10월에 「로마클럽 동경대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응회의를 가진바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대회에서 이미 「지속가능한 성장의 탐구」라는 보고를 MIT의 윌슨(Carol Wilson)교수가 했다는 사실이다. 윌슨교수에 의하면 '72~'73년의 MIT세미나에서 써스테이나블 성장체계(sustainable growth system)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고 한다. 뒷날 브룬트란트보고서(「Our Common Future」, 1987)가 나와 「ESSD」를 거론하여 전세계의 공감을 얻게 되었을 때 이 이론을 앞서 주장해온 로마클럽은 뒷전으로 몰려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새로운 발상을 살리는 조직의 순발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하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동경총회후 일년뒤에 있는 로마클럽의 베를린총

회에서는 제2차보고인 「전환기에 선 인류」(“Mankind at the Turning Point—Second Report to the Club of Rome”, 1974)가 제출되었다. 이것 역시 폭스바겐재단이 제공한 50만달러의 경비로 미국의 케이스 웨스턴대학의 시스템아날리스트인 메사로비치(Mihajlo Mesarovic)교수와 서독의 하노바대학 공대 「페스텔(Eduard Pestel)」교수가 공동 책임자로 된 보고서였다. 이 보고도 모델을 이용한 세계시스템의 분석이었으나 MIT 모델과는 달리 세계를 10개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간의 상호관계가 모델에 나타나도록 되어있고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부여하면 그에 대응하는 시나리오가 나오도록 되어있는 이른바 「멀티 레벨(다계층)시스템 모델」로서 전체로 약 10만개의 함수식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로마클럽의 제3보고서 「국제질서의 재편성」(Jan Timbergen, “RIO—Reshaping the International Order”, 1976)은 지구문제의 근원으로 남북문제를 제시하고 개도국의 빈곤을 구축하고 인류공동의 재산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뒤이어 제4보고서 「인류의 목표」(Ervin Laszolo et al., “Goals for Mankind”, 1977), 제5보고서 「낭비시대를 넘어서서」(Dennis Gabor et al., “Beyond the Age of Waste”, 1978), 제6보고서 「한계없는 학습」(J. Botkin, M. Elmandjra, M. Malitza, “No Limits to Learning”, 1978) 등을 포함하여 모두 18개의 보고서를 펴냈다. 이 모든 보고서는 로마클럽에 제출한 보고서였고 로마클럽자체가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간된 「제1차 지구혁명」(Alexander King & Bertrand Schneider, “The First Global Revolution”, 1991)은 로마클럽에 의해 만들어진 첫번째작품이다.

이 책을 펴낸 집필자의 한 사람인 킹(A. King) 박사는 당시 로마클럽의 의장이었고 공저자인 슈나이더(B. Schneider)는 이 클럽의 사무국장이었다. 이들이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직접 로마클럽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클럽의 창설자인 페제이씨가 1984년에 사망하였고 둘째로 로마클럽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1988년의 파리총회때 클럽의 활동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회원들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클럽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드높여준 제1차 보고서

「성장의 한계」가 발표된지 16년이 된 이때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내세운 「브른트란트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의 인기의 뒷전에 가린 로마클럽은 이미 시대적인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드높아 가고 있었기에 이러한 결의를 하고 새로운 행동방침을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만든 것이 바로 이 보고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클럽의 창설자인 페제이는 2차세계대전중 전체주의체제하의 이탈리아에서 옥중생활을 겪으면서도 「공정을 사랑하고 폭력을 미워해야」한다는 이른바 「신인간주의」를 「The Human Quality」라는 저서를 통해 제창한 뚜렷한 통찰력과 철학을 지닌 사람이었다. 이러한 철학적 견해를 살리고 소진되어 가는 로마클럽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클럽자체가 발간한 이 「제1차지구혁명」에는 지금까지 문제제기로 그쳤던 지난날의 자세를 바꾸어 새롭게 지구적 해결방법(World Resolutique)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로마클럽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 있던 「World Problematique」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지구적문제들을 가능한 한 많은 요소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체계있게 해결해 낼 수 있는 방법 또는 해결을 위한 절차나 효과적인 전략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으로 지구적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한 해결방법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 다른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 가면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들을 동시에 다면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자는 뜻이라고 로마클럽의 현의장인 「디에스-호라이나」(Ricardo Diez-Hochleiner)는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지면관계로 이 책의 내용을 모두 소개할 수 없음을 유감이지만 우리 모두 문제와 그 해결의 두부분으로 나누어 서술된 이 책을 읽어 지구환경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새삼 느껴 보기로 하자. 그리고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처럼 부분적으로 우리의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을 바꾸어 온 지난 날과는 달리 한꺼번에 지구전체를 휩쓸고있는 지구혁명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로 하자.